

# 최훈 행정부지사, 육종·미생물 기관 현장행정

# 전북도, 양봉산업 육성 지원 분야 확대

###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첨단방사선연구소 육종연구센터 방문...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등 청취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지대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첨단방사선연구소 육종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를 방문해 육종 및 생명산업 핵심 연구기관에 대한 현장 행정을 지난 12일 펼쳤다.

최훈 부지사는 연구센터의 실험공간, 기업지원 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사선연구소 육종연구센터'는 방사선 육종을 통한 신품종 고효율 육종 개발, 연구기술 지원, 민간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R&D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우수기술 보급, 미생물소재DB 구축, 교육컨설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육종연구센터 관계자는 "방사선 육종은 감마선 뿐 아니라 전자빔, 양성자빔, 중이온빔 등 다양한 방사선원을 이용해 유전학적 형질을 개선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하는 기술인데, 국내에서 방사선 육종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은 첨단방사선연구소에 방사선육종연구센터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농축산용미생물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축산용 미생물분야 산업화 촉진을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지대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첨단방사선연구소 육종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를 방문해 육종 및 생명산업 핵심 연구기관에 대한 현장 행정을 지난 12일 펼쳤다.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사업'이 센터의 핵심사업으로, 미생물 제품 연구와 전문연구·실용화 시설을 통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화 장비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

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최훈 부지사는 "두 기관으로 인해 전북이 식품, 생명 공학분야 그리고 육종개발 등 농업·생물자원 개발분야 연구와 함께 미생물융합기술개발, 기능성 소재 가공기술 개발 등 미래 바이오 소재 및 생물공정 기술 부문에

서 전국적으로 선두에 서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연구기관의 발전과 성과로 인해 전북이 농생명 융합 거점 지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올해 2개 사업 신규 추가돼 총 7개 사업에 23억여 원가량 지원

전북도가 양봉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도는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견인하기 위해 양봉산업 육성 지원 분야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는 양봉 화분 반죽 자동화 장비 지원과 양봉인 전국대회 개최 등 2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며, 총 7개 사업에 23억여 원가량이 도내 양봉산업 육성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반죽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꿀벌의 먹이인 화분(花粉)을 위생적이고 대량으로 반죽해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시설을 2개소에(익산, 완주)에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이 공급으로 양봉농가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봉인 전국대회를 오는 10월 정읍시에서 개최해 전북도 양봉산업의 우수성과 발전상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높은 호응도를 보였던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도 이어간다.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노후

화된 양봉 사육 기자재 교체 지원과 벌꿀 자동채밀기,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을 지원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벌꿀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충붕어부패병(애벌레 썩음병) 발생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토종벌 농가에 저항성 토종벌 보급과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생태계교란종)을 퇴치하기 위한 퇴치장비 및 포획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을 통해 소비자 대상 교육과 체험을 실시, 양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양봉산업의 화분매개에 따른 농산물 생산 기여 및 산림 생태계 등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올해부터 양봉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년 전부터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 완료 등 농민 공익수당 자격 조건이 충족된 농가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석재산업법 시행에 따른 토석채취장 관리 운영

전북도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2.19.) 석재산업 진흥 관련 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각종 건설사업에서 필수 자재 중 하나인 석재는 그간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 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석재산업법'이 2020년 2월 제정·공포돼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과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석재자원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제를 통해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하고, 주변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

자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통해 석재산업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또, 석재자원조사 및 품질·성분 분석 메뉴얼에 따라, 우수석재 산지 확보를 위한 지표지질 조사, 물리·시추 탐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지역별 석재 특성 DB화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에 따른 산지 난개발과 영세·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향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건축·공예·조경용 석재채취 및 석재의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들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사전홍보와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녹색자금지원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전북도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녹색자금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매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전국 5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적정성, 효과,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해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해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추진한 5개소(북지시설 나들숲 4, 무장애 나들길 1)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지난 2009년부터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소외계층 거주지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서적 안정감 유도와 육체적 건강 기

여 등 공공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치유와 휴식을 위한 복지시설 '나들숲'과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약자층이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나들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2022년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숲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1개소에 복지시설 나들숲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복지시설나들숲 5개소와 무장애나들길 4개소, 복지시설 환경개선 7개소를 확충할 예정이 다. /유호상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급 머리 맞대

### 전북도·시·군·NH, 확대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전북도가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주택공급 업무를 맡고있는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주택공급 업무 관계자 등 전문가 20여명이 총출동한 가운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팀장을 초청해 전북만의 특화된 임대주택 발굴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유형과 제안서 작성방법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은 청년 인구의 지속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정책 전략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중기근로자, 창업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저렴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보건·복지·의료·요양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대학생,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주택 주거지원 전략을 담은 '전북형 주거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특화 주택을 공급 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시·군 의견을 청취하고, 주택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전북도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최일선에 서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하는 콘트론타워 역할을 하고 협업함으로써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유출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이 집 걱정을 덜고 더 행복한 전북형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